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경제로 세상보기

인물들의 일기

광고판에 읽어

정보·문화·미술



김 휘 언

## 효율적 경제활동과 정보이용

현대의 경제생활은 정보생활이라 할 만큼 많은 것을 정보에 의존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정보를 인적자원, 물적 자원, 자본과 더불어 4 대 자원으로 간주하여 정보기술을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정보에 어려운 어떤 공공기관이 잘못 투자하여 수백 억의 손실을 내는가 하면 주부들이 같은 날에 같은 방송을 사도 정보에 따라 대략 10만 원 정도 가격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처럼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사소한 소비생활까지도 정보의 효과적 이용에 따라 크고 작은 이해득실을 가져오며 세상의 모든 경제는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정보에 의해서 의사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마치 유기물처럼 생명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이용하면 독이 되기도 한다. 최근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들의 몰락으로 보듯이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식별할 줄 몰라 왜곡된 정보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다. 현대의 경제생활은 경제정보를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에도 기초적인 경제지식을 가져야 한다.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팔면 사고 반대로 사면 팔아라.” 또는 “애널리스트가 주장한 것과 거꾸로 투자하면 돈을 빈다.”는 증권가의 유머는 정보식별능력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있다.

정보의 비효율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통제한다. 상장기업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사건 그리고 결산

서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의 신용정보회사 서비스를 통하거나 증권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익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본이익률,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채비율, 자산이나 매출액의 증감을 몇 년간 비교하는 성장주세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와 배당성장 그리고 증시주변 환경 변화 등에 의하여 주가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경기의 변화, 통화량, 환율, 원자재 수급상황 등의 요소들은 기업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생활경제 서적에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대학의 경영분석 교재 등으로부터 보다 깊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중산층들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금융자산 소득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기초지식을 익히고 경제정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난립하고 있는 단타 위주의 사설 증권 강의는 개인이나 공동이익에 도움을 주기 어렵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보의 독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이 잘 되고 투자자도 잘 되려면 경제정보의 생성과 흐름이 정확한 예측을 전제로 해야하며 경영자와 투자가 정보의 공급과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자본시장은 우리민의 것이 아니며 개방화된 세계시장의 일부가 되었다. 우선적으로 세계경제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진 경제정보시스템이 구축해야 하며 투명한 정보 없이는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고 선진경제 진입은 불가능하다. 투명성이 있는 구내 기업의 자본이득

은 개인투자가 아닌 대주주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열매를 넘겨주고 만다.

투명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고의 경영윤리로 대우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기업이 장수할 수 없고 투명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지수는 부패지수와 반비례한다. 몇 일 전 유니버시아드 광주 개최가 확정되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지난번 유치 운동에서의 결산회계정보 투명성에 관한 논란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아직 생생히 남아있다. 투명한 예산집행은 대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은 집행자들에게 공포가 아닌 빛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세계경제의 큰 테마는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으로의 기술 선점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전조기지의 구축과 같아서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정부 전쟁이 치열하다. 유리한 환경을 갖고도 정보전쟁에서 지면 중앙정부지원이나 사업유치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전남은 미개발 녹색에너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풍력, 태양력, 해양에너지지원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전남도청이 정보의 지휘자 역할을 다하여 이번에는 전남이 또 아끼놓은 땅이라는 구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사소한 소비생활까지도 정보의 효과적 이용에 따라 크고 작은 이해득실을 가져오며 세상의 모든 경제는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정보에 의해서 의사 결정하고 있다.

”

정보의 비효율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통제한다. 상장기업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사건 그리고 결산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종교칼럼



박 은 식

“최고를 향한 도전! (Challenge for the Best.)” 광주시가 2015년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뛰어들면서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두 번 도전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한 광주가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여 2년에 1번씩 열리는 세계 학생 스포츠대회입니다. 19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학생 경기대회가 출신이며 유니버시아드란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59년 이탈리아의 토리노 하계 유니버시아드 제1회 대회부터입니다. 2회 대회 불가리아의 소피아 3회 대회 브라질의 포토알레그레고를 거쳐 대한민국 광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15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세계 각국의 대학생 1만 여명이 모여 17개 경기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통해 빛고을의 젊은이

들이 강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계인의

## 2015비전 토리노에서 빛고을까지

광주는 개최 엔터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꿈과 희망’을 뜻하는 다섯 개의 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형상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의 진취와 도전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대회를 향한 광주시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민주와 인권의 도시로 아시아와 세계에 영향을 끼친 광주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인에게 각인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이번 대회의 콘셉트를 최첨단 IT대회, 친환경 경제대회, 걸쳐 유니버시아드, 광화 학회의 축제 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모임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의도하는 방향대로 잘 준비되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145만 광주 시민이 헌신한 정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모든 나라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 스포츠를 통한 지구촌 친선입니다. 세계의 우리 아들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국제대학생연盟 홈페이지([www.fisu.ne](http://www.fisu.ne))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Excellence in Mind and Body” (국제대학생 스포츠연맹, 훌륭한 몸과 마음) 훌륭한 몸과 마음을 길러 세계인의 주역들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대학생 스포츠 연맹입니다.

빛고을에서 열리는 28회 대회가 진정으로 다른 세대들에게 훌륭한 몸과 마음을 함양하는 진정한 젊음의 한마당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회보다 비 상업적이며 덜 이기적인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친 상업주의와 기성세대의 가치에 물들지 않아야함을 배워가며 하는 대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를 통해 빛고을의 젊은이들이 강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계인의

## 기고



장 갑 수

을 1월 5일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하여 5개월 정도를 광주와 전남·북 보훈업무를 수행하면서 떠나온 고사성이 있는데 ‘서경’의 ‘열명편’에 나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다.

‘미리 준비하면 훗날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는 보훈업무야말로 유비무환 정신을 국민에게 상기시키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업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가보훈은 과거·현재·미래임에 틀림없다.

제 2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부 주관으로 첫 행사를 치른 뒤 2003년부터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성대히 치러지고 있다.

세계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5·18 민주화운동이건만 올해 제2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준비하고 다양한 계기 행사들을 함께하면서 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기가 예년만 같지 못하고 시들해진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또한, 각종 계기행사에 참석하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이

## 광주의 5월을 보내며

준비하고 다양한 행사를 함께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광주의 5월이 피부로, 가슴으로 느껴지는 한 해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 드린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여 5월의 의미를 많은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광주지역 계엄군의 무력진압과 관련,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반독재 투쟁운동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압과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시민들의 항쟁으로서 자유와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옹호하고 민주와 정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7년 5·18 민중항쟁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여 정부

분들은 5월의 계기행사의 전개 양상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인차는 있으나 대부분이 탄압기로 거쳐 투쟁기이며 이에 개화기로 접어든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내년 2010년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해다. 개화기에 접어든 30주년을 대비하여, 과거에 암울이지 않고 더 밝은 미래지향적인 5·18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5·18 관련 단체와 행사추진위, 기관 등이 하나가 되어 80년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대동정신이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희망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5·18 제 30주년도 광주시민만의 대동세상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의 대동세상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광주지방보훈청장〉

## 세탁기 내부 세균·곰팡이 심각한 수준

만약 가정용 세탁기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성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곰팡이가 다량 서식하고 있다면 주부들은 기절초풍할 것이다.

세탁기 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통 표면에 누런 이물질이 떡지떡지 붙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요철이 많은 회전판 밑부분에도 비슷한 갈색 이물질이 묻어 나온다. 이게 전부 세균덩어리다. 옷은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닌다.

속에서 헤心理健康이라고 한다. 인체에 유해한 곰팡이 세균 중 아스퍼자스, 알터나리아 등 세 종류의 곰팡이는 몸속에 들어가면 천식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에 폐렴까지 일으키는 악성 곰팡이 세균이다.

제조사들은 항균성 세탁기 항 내균성 바이오세탁기를 개발하거나 세균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정다워·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 시설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며…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는 날이다. 고인은 오전 11시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질 영결식을 마치고 서울을 떠나 수원의 화장터를 거쳐 봉화마을 사저 앞에 마련된 악식에서 영면(永眠)하게 된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삼가 명복을 빈다.

7일간의 장례기간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생애가 결코 흐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봉화마을을 비롯해 전국에 설치된 300여 곳의 분향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의 발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고인은 추모 열기로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 정부의 독선·독주로 소통 공간마저 빼앗긴 현실과 맞물리면서 분출된 국민의 분노와 울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권, 민주주의, 남북화해, 소외계층 보듬기, 지역주의 타파, 균형발전 등 고인이 평생 지향했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인의 서거가 헛되지 않은 이유다.

특히 겨울에 사는 생각에 봄이 되어 드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진술한 입장 표명과 함께 확고한 진상규명의지를 밝혀야 한다. 사상 유례 없는 국가적 불행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 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에 사는 생각에 봄이 되어 드는 듯한 느낌이다. 주변 인물들을 낌없이 수사하고 사법 처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풀이식’ 수사방식이 적발했는지 그동안의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검찰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역시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국민이 본분과 같은 한 시대를 과거로 돌리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정신을 확인하는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다.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된 옛 남도청 인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5·18 유족회 및 부상자회와 5·18 구속부상자회가 도청별관 앞 광장에서 몸싸움을 한 것이다. 싸움의 발단은 구속부상자회원 20명이 별관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 주변에 5·18 29주년 행사인 ‘부활제’ 무대를 설치하자고 했지만 유족회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어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노 전 대통령의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유언에 따라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5월 단체들은 본분과 반복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곧 5·18의 대동정신을 기리는 것이다.

## 無等鼓

당신의 마지막 바람은 무척이나 소박했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 했다. 소탈하고 서민에 닿아있는 이런 품성 때문에 민초들이 좋아했다는 듯이다.

2002년 12월 19일 새벽, 간밤에 노·정연합이 깨졌다. 소식에 행여 당신이 멀어질까봐 신사벽부터 투표소에 줄어들 선 민초들을 기억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당찬 정부를 주창한 편 이전 호남이 그 오랜 소외의 굴레를 벗는구나 하고 감격해 하기도 했다.

고 당찬 계획드라이브를 걸 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광주에 문화발전소를 세우겠다고 광주문화수도를 주창한 편 이전 호남이 그 오랜 소외의 굴레를 벗는구나 하고 감격해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화연합에는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퇴임 후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길 바랐다. 고향 마을에 정착, 농촌운동에 열정을 보이고 당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과 이야기를 나눌 편 퇴임 후 봉사와 평화의 전도사가 된